“제주4.3, 불교 피해 커”… 사찰 전소·승려 사망

한금순 박사, 제주4.3 70주년 세미나서 불교 피해 밝혀

1948~1949 초토화작전기 집중
예비검속 명분에 강제 수장도
제주불교 전통 단절 아픔 겪어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억해야”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제주4.3항쟁기 제주불교의 수난은 제주사회 현안에 깊숙이 참여해 활동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승려들의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관음사 등 사찰들이 제주4.3항쟁의 격전지로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제주4.3사건이 올해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당시 제주불교계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조명됐다. 한금순 문학박사는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주4.3 70주년 학술세미나서 ‘제주4.3항쟁과 제주불교의 수난’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 박사에 따르면 제주4.3항쟁으로 인해 근대제주불교 활동을 주도한 승려들이 대거 희생되면서 제주불교 활동 전반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 이 시기 승려 피해는 14개 사찰 소속 승려 16명으로, 총살 10명, 수장 2명, 고문 후유증 사망 1명, 일본으로 도피 1명, 행방불명 2명으로 조사돼 있다.

한 박사는 “가해자는 모두 토벌대다. 피해 시기는 제주4.3항쟁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의 초토화작전 시기에 집중돼 있다”면서 “사찰 경내서 총살당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는 예비검속이라는 명분아래 산채로 돌을 묶어 바다에 수장했고, 집단 학살 과정 등에 승려들이 살해당했다. 정식재판에서 죄를 묻지 않고 군경이 임의대로 인명을 살상한 불법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당시 제주불교를 대표한 승려인 이일선은 선운사에서 출가해 백양사서 공부하고, 1938년 백양사 포교사로 제주도서 활동했다. 1945년 ‘조선불교혁신 제주도 승려대회’ 준비위원장으로서 친일을 반성하고, 왜색화 된 불교풍토를 정화하려는 노력을 주도했다. 1947년 ‘3.1절 기념 투쟁 제주도위원회’ 선정동원부에서 활동하고,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3인 의장단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정광사에서 예비검속돼 산지포구서 수장됐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불교 재산피해도 막대했다. 한 박사에 따르면 제주4.3항쟁 당시 피해를 입은 제주불교 사찰은 37개소가 조사돼 있다. 이 중 사찰 건물 피해는 35개소로, 전소된 사찰만 18곳에 달한다.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파옥한 곳 10개소, 오랫동안 접근과 사용이 금지되며 폐허된 곳 4개소, 강제 매각 당한 곳 1개소로 집계됐다. 전소시킨 후 토벌대 주둔소로 활용하거나 육군훈련소 숙영지 혹은 면사무소로 사용된 사찰도 있었다.

한 박사는 “사찰 내에 있던 법당과 요사채, 객사 등 건물 피해 위주로 조사돼 있다. 건물 이외에 불상 등의 피해는 오랜 세월이 흘러 쉽게 조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소개령으로 피난할 경우 불상을 끌어안거나 등에 업어 옮겨 다녔던 상황이 증언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 제주4.3항쟁 이전에 봉안한 불상과 탱화를 보유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피해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박사는 이어 “제주불교를 이끌던 인명의 피해는 오래도록 그 후유증이 컸으며, 사찰 건물 등의 피해 또한 재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만큼 피해 또한 막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제주불교는 해방으로 새로운 국가 건설에 맞춘 한국불교 전통을 되살리고자 했다. 하지만 이런 희망은 4.3으로 인해 단절되다시피 했다. 오늘날 제주불교는 제주4.3항쟁기 치열한 제주사회 참여활동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불교계가 지금이라도 제주4.3항쟁과 제주불교의 사회참여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전반적인 연구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정 스님 8주기 다시 펼쳐진 ‘무소유’

길상사, 3월 13일 추모법회 간소하게 개최

영전에 국수 공양
육성법문 등 공개



법정 스님 입적 8주기를 맞아 스님이 평소 펼친 무소유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 길상사는 3월 13일 설법전에서 입적 8주기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는 스님의 평소 가르침을 따라 간소하게 개최됐지만 송광사 법흥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원 인환 스님, 전 포교원장 혜총 스님 등과 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길상사 주지 덕일 스님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서도 무소유 사상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영단에는 생전 스님이 좋아했던 국수와 함께 최근 맑고향기롭게가 수상한 국민추천포상 대통령 단체표창이 함께 올려졌다.

법회 후에는 2016년 길상사 창건 9주년 당시 법정 스님의 법문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이 상영됐다.

영상에서 법정 스님은 1994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주창하며 길상사를 창건한 의미를 설명했다.

길상사는 앞선 3월 11일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를 개최했다. 또 13일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 등도 추모법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성주사 회주 흥교 스님과 부산불교교육대학장 범혜 스님을 비롯해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박수관 회장, 부산불교지도자 포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수관 회장은 “법정 스님이 몸소 실천하신 삶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맑고향기롭게는 5월 5일 길상사에서 제2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패럴림픽서도 월정사 국빈 방문 활발

7일 패럴림픽 조직위 만찬
11일 노르웨이 공주 방문

2018패럴림픽 기간에도 평창 월정사가 국빈 방문지로 각광받고 있다. 평창 월정사는 3월 7일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환영만찬을 개최한데 이어 11일 노르웨이 마르타 루이세 공주 일행이 사찰 참배를 진행했다.

만찬에는 앤드루 파슨스 IPC 위원장과 주지 정념 스님,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명희 강릉시장, 심재국 평창군수 등 50여명이 참석해 정갈하고 담백한 사찰음식을 맛봤다.

이들은 월정사 스님들이 시연한 법고와 타종, 이매방류 승무 전승자인 진유림씨와 정가악회 공연도 관람했다.

월정사에서 마련한 만찬은 월정사 산내 암자인 지장암 비구니 스님들이 준비한 것으로 사찰음식의 정갈함과 담백함을 맛볼 수 있어 참석자들의 찬탄을 자아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월정사 측에서는 대법륜전에 장애인 이동통로 및 이동식 장애인전용화장실을 갖추는 등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


3월 7일 월정사 IPC 만찬서 펼쳐진 승무 공연 모습.

노르웨이 공주 일행은 월정사 총무국장 인광 스님 안내로 경내를 탐방하고 사찰 내 청류다원에서 차담을 나눴다.

월정사는 643년 신라 자장 율사가 창건한 전통사찰로 올림픽 개최 시·군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문화유산이다. 상원사 동종과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문수동자목조좌상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 강원도 유형문화재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월정사 측은 “월정사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사찰로 불교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라며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림픽 기간에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등 국가수반이 방문했으며 CNN과 NBC, NHK 등 해외 언론도 월정사를 찾아 한국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도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쌍용차 해고자 복직 위한 사회노동위 오체투지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을 위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나섰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회노동위)는 3월 12일 서울 조계사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쌍용차 해고자 원직복직을 발원하며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이날 오체투지에는 윤충렬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도 참여했다.

쌍용차 해고 사태는 현재 평택 쌍용차 본사서 정리해고자 1,400여 명을 2017년 상반기까지 순차 복직시키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103명 만이 복직되며 현재 진행 중이다. 쌍용차 측과 금속노조 측은 2월 20일부터 해고자 복직을 놓고 세 차례 실무교섭을 했으나 복직 규모와 시기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고, 김득중 금속노조 지부장 등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스님은 “쌍용차에선 사람과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해고자들이 복직할 때까지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敎 示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승가 공동체를 구성하신 것은 傳法과 和合을 위해서 입니다. 승가의 운영 원리에는 오직 화합만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 우리 종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과오로 이탈하였으나 懺悔하고 自重하며 다시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들 앞에서 진심을 다해 自恣하여 종단의 일원으로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화합 조치를 통해 宗門을 더 높고 빛나게 하고 우리 교단의 존재 이유인 持戒淸淨, 精進和合, 廣度衆生의 길에 모든 宗徒가 일치단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수행공동체의 신심과 원력으로 남과 북의 모든 민초들이 함께 번영해 나갈 活路를 여는데 進力해야 합니다.

오직 부처님 법 그대로 수행하여 常樂我淨의 기쁨을 중생들과 함께 누리시길 간절히 당부합니다.

불기 2562(2018)년 3월 12일

大韓佛敎曹溪宗 宗正 眞際 法遠